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과 아메리카니즘*

나 보 령**

[초 록]

이 글에서는 「새울림」, 「지평선」 연작을 대상으로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공간인 피난지 부산에 주목하였다. 이 소설들은 전쟁의 상흔을 덮고 신속하게 재건되는 새로운 일상과, 부산을 거점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시 재건 작업을 긴밀하게 연결시킨다. 이때 후자는 등장인물들의 일상과 같은 미시적인 차원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피난지 부산 전반을 아메리카니즘에 잠식된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편, 이와 같은 후방에서의 미국의 활동이 전장에서의 무차별적인 파괴, 학살과 동시에 전개되는 역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염

* 논문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서울대학교의 김종욱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원

주제어: 한국전쟁, 전후, 재건, 취우, 새울림, 지평선, 홍염, 사선, 미망인, 화관, 효풍, 유엔한국재건단,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잔류파, 월남(越南), 월경(越境)
Korean War, UNCACK, UNKRA, post-war reconstruction, defecting to South Korea, crossing the border

상섭은 이를 오직 미국 헤게모니의 자본주의 세계무대를 향해서만 열려있고, 낙동강 너머는 완전히 차단된 피난지 부산의 독특한 공간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낙동강 너머는 물론, 삼팔선 이북 지역은 현실에서도 서사에서도 소거된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군정기의 서울이 배경인 『효풍』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1950년대 소설 속의 피난지 부산을 해방기부터 지속된 염상섭의 일련의 월경(월남)의 여정 가운데 위치한 공간이자, 해방 이후에서 전후를 연속하는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볼 수 있다.

1. 두 번의 월남 끝에 다다른 곳

최근 전후문학 연구에서 주목 받는 ‘월남’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삶의 근거를 이북에 둔 채 정치적, 사상적 혹은 기타 이유로 이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남한으로 이주”¹⁾함을 뜻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이동은 보편적인 차원에서는 고향 상실²⁾을 의미하는 한편, 삼팔선이라는 지정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한반도가 일종의 사상지리(ideological geography) 권으로 재편된 이래, 자의든 타의든 상호 배타적인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선택 행위로서 받아들여졌다.³⁾ 그런데 꼭 삶의 근거지(고향)가 이북이거나 삼팔선을 통과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에 걸친 기간 동안 넓은 의미에서 월남으로 포괄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의 양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월남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게

-
- 1) 서세립(2016),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
 - 2) 방민호(2015),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7-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p. 158-212.
 - 3) 이해령(2012), 『사상지리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p. 138.

만든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서울 출신의 작가이지만, 1949년 결성된 ‘월남작가 클럽’에 가입된 염상섭의 경우는 특별한 시사점을 준다. 1939년 만주로 이주한 그는 해방을 맞아 중국 안동으로부터 신의주를 경유해 서울로 돌아왔는데, 평범해 보이는 이 귀환의 여정은 그가 신의주에서 8개월간 체류했다는 사실 못지않게,⁴⁾ 삼팔선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월남의 의미를 부여 받게 된 셈이다.⁵⁾ 여기서 삼팔선이라는 경계는 월남을 판가름하는 가장 자명한 기준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경계는 수시로 변경되곤 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실제 뒤이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선은 계속 이동하였고, 그때마다 경계로서의 삼팔선은 재구축되었다. 일례로 전쟁 발발 직후 피난에 실패하고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훗날 치러야 했던 자기증명 과정은 삼팔선을 넘어 남한사회로 이주한 월남민들이 처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로부터 삼팔선이 어느새 도강과 잔류라는 새로운 경계로 변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염상섭은 서둘러 자원입대하여 부산의 해군본부에서 복무함으로써 잔류파라는 낙인을 지우는 길을 택했다. 앞선 해방기의 서울행을 염상섭의 1차 월남으로, 이른바 1.4후퇴 시기의 부산행을 2차 월남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후자 역시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임시수도 부산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신분 조사와

4) 김재용은 염상섭이 해방을 맞아 귀환하는 과정에서 1945년 10월경 신의주에 도착한 뒤 약 8개월간 체류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 시간이 단순한 경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곳에서 소련군 점령기의 이북 체제를 경험한 만큼 삼팔선을 넘어 이남으로 내려온 염상섭의 선택이 당시 월남 작가들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김재용(1999),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 8.15 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pp. 193-194).

5) 이해령(2012), p. 148.

‘사상 온건 여부’ 심사를 거쳐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낙동강을 도강하는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발포, 사살까지 이루어졌던 것이다.⁶⁾ 여기서 삼팔선은 다시 낙동강 이북과 이남의 경계로 변주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방기부터 전후에 걸친 염상섭 소설의 중심에는 이처럼 다양한 경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문제의식이 가로놓여 있다. 만주, 신의주에서의 경험 및 삼팔선을 향해 남하하는 여정 끝에 도달한 해방기 서울의 풍경을 그린 소설들은 이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반면,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월남(피난)과 그 종착역으로서의 부산을 그린 소설들에 주목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의 의의가 『취우』(조선일보, 1952.7.18.~1953.2.20.)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작품에서만 인정되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통속적이고 쇠말적인 세태묘사에 함몰된 것으로 평가되어온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해방기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소설들 역시 이와 같은 이동과 월경(越境)의 궤적을 염두에 두며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때 넓은 시야라는 것은 단순히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다. 『취우』가 그려낸 염상섭 소설의 오랜 무대인 서울 사대문 안의 풍경을 넘어,⁷⁾ 이 시기 작품들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부산이라는 공간으로 연구의 시야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주목되는 소설이 『취우』의 후속작이자, 작가가 이름 붙인 “소나기 삼형제”⁸⁾의 나머지 두 편에 해당하는 『새울림』(국제신보,

6) 강성현(2010), 『한국전쟁기 한국정부와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전장과 사 람들』(서중석 외 편), 서울: 선인, pp. 123-195.

7) 물론 전후의 서울이 배경인 소설 속의 도시 문화와 연애 서사의 정치성을 분석한 최애순, 정종현의 논의 역시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로써 주목할 만하다(최애순(2013), 『1950년대 서울 종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현대소설연구』 52, 현대소설학회, pp. 143-185; 정종현(2014),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 연구』 62, 동악어문학회, pp. 119-150).

1953.12.15.~1954.2.26.), 『지평선』(현대문학, 1955.1~1955.6) 연작이다. 전작 『취우』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약 3개월 동안의 인민군 치하의 서울을 주된 배경으로 택했다면, 이 후속작들은 1.4후퇴 이후의 임시수도 부산을 향해 소설의 무대를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월남을 거쳐 당도한 부산을 염상섭은 어떠한 방식으로 포착했을까. 이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 배경임에도 이 소설들이 이미 전쟁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건의 문제, 그와 맞물려 출현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부흥’이나 ‘재건’의 문제는 전쟁이 파괴시킨 일상을 피난지 부산에서 회복해나가는 등장인물들의 서사를 대변하는 한편, 여기에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전시 재건 작업 및 원조 활동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작가의 시선은 부산에 자리 잡은 UNKRA⁹⁾와 CAC¹⁰⁾의 미군들, 그리고 이들을 환대하는 술한 연회 장면을 날카롭게 묘사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쟁 당시 UNCACK를 비롯한 미군이 후방에서 수

8) 염상섭, 「작가의 말: 『취우』」, 『조선일보』, 1952.7.11.; 한기형, 이해령 편(2014), 『염상섭 문장 전집』 3, 서울: 소명출판, p. 213 재인용.

9) 1950년 12월 1일 제5차 유엔 총회는 한국의 경제를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부흥시킬 것을 결의하고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설치해 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시 UNKRA의 활동은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를 도와 긴급 구호사업을 전개하는 수준에 그쳤고, 본격적인 활동은 휴전 이후에 개시되었다(김학재(2010),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 해제」, 『전장과 사람들』, p. 294).

10)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는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산하에 본부와 전국 지역 팀을 거느린 별도의 군부대로, 원조물자의 배분뿐만 아니라, 군사점령과 군정, 민간인과 피난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업무 등 전쟁의 승리와 정당성을 위해 폭넓은 민사 업무 기능을 담당하였던 군 조직이었다(김학재(2010),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주한유엔민간조사령부(UNCACK)의 창설 과정과 성격」, 『전장과 사람들』, p. 17).

행한 역할에 주목한 김학재(2010)의 논의는 흥미할 대목이 많다. 그에 따르면, 전장의 이면에서 원조와 재건과 같은 사후적 수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역설이야말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양상이자, 전쟁이 정당화되는 방식이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유엔, 이승만 정권은 무차별적인 학살과 진압을 전개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원조와 위생처리, 정치적 재교육이라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즉, 원조는 파괴로서의 전쟁과 결코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순수하고 중립적인 좁은 영역에 국한되지도 않았다.¹¹⁾ 그것은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 및 국내 정치의 이해관계와 깊숙이 얽혀있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그 내부로 포섭하는 장기적 전환으로서의 재건의 첫 단계였던 것이다.¹²⁾

『취우』 이후 『새울림』, 『지평선』 연작에서 무대로 선택된 피난지 부산은 정확히 이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여기서 부산은 전쟁의 상흔 위로 신속하게 재건되는 일상의 공간인 동시에, 이를 주재하는 권력자로서의 미국의 헤게모니가 질게 드리운 공간이다. 이때 파괴와 학살로 점철된 ‘폭력으로서의 미국’¹³⁾이 낙동강 이북 지역에 집중된 대신, 상대적으로 후방 부산에서 그것은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미국에 대한 선

11) 김학재(2010), pp. 22-23.

12) 김학재(2010), p. 30.

13) 전후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 속의 미국 표상에 주목한 요시미 순야의 논의(吉見俊哉(2007), 『新米と反米: 後日本の政治的無意識』, 岩波書店)는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데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장세진의 지적과 같이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해방군인 동시에 점령군이라는 모순적인 위상을 지녔던 까닭에 이를 곧바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장세진(2012), 『상상된 아메리카』, 서울: 푸른역사, pp. 398-399).

그러나 ‘폭력으로서의 미국’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국한된 까닭에 일본 ‘본토’에서 그것이 덜 가시화되고,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차원에서의 선망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는 지적은 한국전쟁기 피난지 부산의 아메리카니즘을 분석하는 문제에도 적절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보인다.

망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된다. 염상섭은 이를 피난지 부산에 촘촘히 포진해있는 아메리카니즘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이 글은 이처럼 염상섭의 월남(피난)과 그 종착역으로서의 부산이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부산이라는 공간으로 소설의 무대를 대폭 이동함으로써 염상섭이 포착하고자 했던 문제를 부산을 한국전쟁기 미국의 개입과 관련해 중요하게 의미화하는 『새올림』, 『지평선』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공간의 이동을 해방기부터 지속된 일련의 월경의 여정 가운데 위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방 이후에서 전후를 연속하는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이 글에서 기대하는 바다.

2. 월경의 실패와 전시 서울에서의 잔류

2.1. 잔류파라는 낙인

전쟁이 발발하였을 당시 돈암동에 거주하였던 염상섭은 인민군이 점령한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살아남은 이른바 잔류파 작가이다. 해방기 내내 중립 노선을 고수해왔음에도 신민일보 필화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는 일¹⁴⁾ 등을 겪으며 좌익 혐의를 받아온 그는 잔류파라는 낙인 때문인지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뒤인 1950년 11월, 5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해군사관학교 특별교육대에 입대하였다. 각 군별로 중군 작가단을 결성한 시기가 1951년 5월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무영, 윤백남과 함께 해군에 입대한 염상섭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이른 편이다.¹⁵⁾

14) 해방기 염상섭의 정치적 행보와 문학에 관해서는 김재용(1999); 김중욱(2015),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 『효풍』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 101-118.

잔류 체험에 대해 그가 직접적으로 남긴 글은 거의 없으며, 『하지않은 회억』 정도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이 글 역시 1950년 10월의 시점에서 시작하는 일기 형식을 취하는 까닭에 이후 해군에 입대한 경위 및 해군 생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한 반면, 인민군 점령 당시의 경험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석 달 동안 부대끼느라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이 서울을 하루 바삐 빠져나가는 것만 수다.”¹⁶⁾ 등과 같은 몇몇 문장들을 통해 이 시기 월경(피난)에 실패한 그가 겪은 고초와 옷가지를 팔아 가며 근근이 이어나간 생활상 정도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대신 염상섭의 1950년대 소설 가운데 전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당시 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단적으로 이민영(2015)은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취우』를 등장인물들의 잔류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잔류파의 자기 증명 과정의 일부”¹⁷⁾로서 분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작품 곳곳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보호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외따른 섬에 갇힌 것 같은 서울시민들”의 불안과 공포(『취우』),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발 빠르게 가담한 좌익과 기회주의자형의 인물들(『탐내는 하꼬방』, 『자전거』), 우익 인사들에 대한 숙청 및 부역과 징집을 피한 은신(『홍염』, 『사선』), 반대로 인민군이 패주하자마자 좌익과 부역자들에게 가해지는 보복(『해방의 아침』, 『잭나이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거의 모든 작품들이 이념의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15) 물론 해군 시절에 대해 언급한 「군인이 된 두 가지 감상」(『신천지』, 1952.1)이나 「하지않은 회억」(예술원보, 1960.12)에서는 군인이 된 경위와 관련해 잔류 문제를 연관시키고 있지 않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다소 충동적인 선택인 양(“어쩔동해서 입게 된 것이 이 군복”) 회고된다는 점은 이와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한다.

16) 염상섭, 「하지않은 회억」, 『예술원보』 5, 1960.12, p. 149

17) 이민영(2015), 「1945~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87.

것이다. 대표적으로 단편 『同氣』(사상계, 1959.8)는 월남한 우익 민족주의자 형과 공산주의자 동생 사이의 해방 이전부터 지속되어오는 오랜 갈등을 그리면서도, 이를 좀 더 내밀하고 사적인 차원에서 조명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즉, “이데올로기의 相異”보다 “동기라는 혈연”인 까닭에 쉽게 틀어지고 이끌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감정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장편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예컨대, 『취우』에서는 해방 이후 가정을 버리고 월북한 남편을 둔 강순제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생리적” 혐오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념적 갈등이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홍염』(자유세계, 1952.1~10, 1952.12, 1953.2), 『사선』(자유세계, 1956.10~12, 1957.3~4) 연작의 경우, 우익 계열의 잡지사 사장이자 해방 후부터 정치 운동에 관여해 온 박영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들이 각각 인민군과 국군으로 참전한다는 설정상 이념 문제가 부각될 법하지만, 인민군인 장남이 집을 몰수하고 자수를 권하는 과정에서 박영선이 느끼는 분노를 그럴뿐 더 이상 본격적인 서사가 전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보도연맹 가입을 겪은 뒤 염상섭의 자기 검열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본 김재용(1999)¹⁸⁾의 분석은 설득력을 지닌다. 여기에 더해 잔류파라는 낙인 또한 그의 창작에 제한을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1950년대 창작된 염상섭 소설들이 대개 매너리즘에 빠진 채 세태묘사에 그칠 뿐이라는 판단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이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작가의 문제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18) 김재용(1999), p. 200.

2.2.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정책과 한국전쟁

이 점에서 『취우』와 동일한 시공간을 다루고 있지만, 그동안 거의 언급되지 않은 「홍염」, 「사선」 연작은 새삼 주목을 요한다. 중년 남녀의 삼각관계가 전면화 되는 까닭에 전쟁과 크게 상관이 없는 통속물로 취급된 이 소설에는 좌익들에 의한 숙청과 회유를 피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서사의 전면에서) 깊숙이 은신해버린 박영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탈고한 것으로 제시되는 논설은 흥미롭게도 텔레스의 성명에 대한 공개장 형식의 글로, 여기서 그는 미국이 일본과 평화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본과의 평화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찍부터 미국 내에서 논의된 문제이다. 특히 패전국 일본이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놓인 상태에서 신중국이 수립되고 소련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자, 미국은 국제정치적으로도,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차원에서도 일본과 가능한 빨리 평화협약을 체결해 아시아에서 주권국가로서 일본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비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회복과 자유무역 체제를 수립하기 위함이었다.¹⁹⁾

따라서 미국은 처벌적이고 제한적인 평화협약 대신, 일본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제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한편, 소련과의 무역을 금지시켜 반공주의 노선을 따르도록 일본의 산업 재건과 경제 통합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평화협약을 기획하였다.²⁰⁾ 1950년 4월 이 협약 관련 보고서의 책임자로 임명된 이가 텔레스이며, 그는 향후 평화협약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집단 방위 시스템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는다.²¹⁾

19) 김학재(2015), 『판문점 체제의 기원』, 서울: 후마니타스, pp. 336-338.

20) 김학재(2015), p. 339.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정책은 일본에 대한 미군정의 정치적 통제가 사라지고 미군의 이해관계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은 물론, 남한에서도 거센 반발 여론을 일으켰다. 특히 일본에 비해 우선 관심사가 아닌 남한의 경우, 경제와 군사 원조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려 한 트루먼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49년 6월 500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남한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킨 일이라든지, 1950년 1월 이른바 애치슨 선언으로 남한이 미국의 공식 방위선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²²⁾ 일련의 상황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참전 여부나 원조 정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던 까닭에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중소동맹조약이 된 것이 이월 보름께 일인데 녀 달 만에 겨우 그 대항책으로 대일단독강화지 조기강화(早期講和)인지를 서두르는 것 쯤이니, **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일본을 경제부흥을 시켜 주고 재무장을 시켜서 방공(防共)의 방파제로 내세우자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요 내일의 일본이 또 다시 우리 집 뒷문을 노리는 이리 [狼]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차치막론하고라도 당장 앞 문턱에 입을 벌리고 앉았는 호랑이는 누구더러 무얼로 막아 내라는 말일지, 그야 우리가 막아 내야는 하겠지만 적어도 소련이 저놈에게 주니만치나 중화기라든지 비행기를 주고서 씨름을 하라야 말이 되죠. ……철의 장막이라 하기도 금성탕지(金城湯池)가 아니거던 전연 비무장상태**

21) 김학재(2015), p. 341.

22) 공교롭게도 애치슨 선언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한 까닭에 그것이 ‘남침의 초대장’과도 같이 오해되어왔지만, 미국이 전후 대서양 지역과 비교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공식적 수준에서 유지해온 오랜 침묵을 고려하였을 때, 애치슨의 발언은 해당 방위선 바깥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 표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명섭(2000), 『한국전쟁 직전의 ‘애치슨선언’에 대한 재해석: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 『군사』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105).

대로 내버려 두고 가 버렸으니 벌거숭이 환도 찬 셈으루 총자루나 하나 메고 멀거니 삼팔선을 바라보고 있는 감시병과 똑같은 신센데 그래 일본 무장부터 시켜야 하겠다니 정세를 알고 하는 수작인지 더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²³⁾

이처럼 “대일강화조약의 서막이 열리려는 기미”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홍염』의 박영선은 국방의 진공상태를 메우기 위해 백만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을 향해 한국 원조의 구제안을 시급히 세우고 실행하라는 결론의 글을 발표한다. 하지만 소설에서 이 논설이 실린 잡지가 채 유통되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어쨌든 강화조약이 순조롭게 나간대도 일 년은 걸릴 거요, 재무장을 가령 육군만 우선 이십만으로 잡드라도 아무리 빨라야 일 년 내지 일 년 반은 걸릴 테니 이 이태 동안에 최전선의 교두보를 알몸뚱이로 별판에 내버려 둘 리는 결코 없을 거요. 만일 그랬다가는 카이로선언이나 유엔현장이 휴지가 되고 약소국가 전체에 대한 식언(食言)이 될 거니 위신 문제도 문제려니와 그래 가지구 자유세계를 어떻게 리드해 나가구 어떻게 지탱한단 말요. 다만 이 년이면 이 년이란 시간을 가장 유효하게 써야 자유진영에도 확고한 정비가 되고 우리도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동시에 일본이 무장을 한 뒤라도 뒷문을 또 다시 노리지 못하게 할 텐데……. 결국은 미국의 신의와, 유엔 정신의 실천을 바라고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 없지 않소? …….”²⁴⁾

이와 관련해 염상섭이 실제 ‘UN과 조선문제’를 주제로 내건 한 설문에서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한반도에서 신속하게 동시철병하기를 바라지만,

23) 염상섭, 『홍염』, 『자유세계』, 1952.4, pp. 213-214.

24) 염상섭, 『홍염』, p. 214.

“철병 후 통일과 자주를 자해하는 사태의 소지를 만들어놓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²⁵⁾고 지적하였던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이는 그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창작된 『홍염』 속 박영선의 주장을 통해 씩씩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전쟁이 이미 발발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서사화하는 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한국전쟁과 관련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작가의 이목이 동아시아로 냉전정책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한 미국을 겨냥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을 비단 남북한의 이념 갈등이 아닌, 미국과 2차 대전 이후의 일본, 더 나아가 중국, 소련을 포함한 거시적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알몸뚱이나 다름없는 무방비 상태로 “미국의 신의”와 “유엔 정신의 실천”을 바랄 뿐인 한국이 냉전사에 뚜렷이 기록될 만한 열전이 현장이 되는 현실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공소한 것인지를 폭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염상섭이 해방기 창작한 『효풍』(자유신문, 1948.1.1~11.3)에서 이미 미국에 의한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로서의 한국의 탈식민 문제와 함께, “해방자”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제국의 지위에서 한반도에 개입하기 시작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바 있음을 상기해 볼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개입을 주시하는 염상섭의 시선은 소설의 무대를 피난지 부산으로 이동한 작품들에서 한층 본격화된다. 전쟁 기간 내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신성불가침의 도시, 미군과 유엔의 물자들이 끊임없이 쏟아 부어진 부산이야말로, 기실 한국 속의 작은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25) 염상섭, 『UN과 조선문제』, 『신천지』, 1948.1; 한기형, 이혜령 편(2014), p. 68 재인용.

3. 또 한 번의 월경과 피난지 부산의 발견

3.1. 난도(亂都) 부산

1950년대 창작된 염상섭 소설에서 부산은 제2의 무대라고 할 만큼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 같은 현상은 염상섭이 부산에 피난하였을 당시²⁶⁾는 물론, 휴전과 환도가 이루어진 뒤에도 한동안 지속되어 나타난다. 특히 1950년대 후반 창작된 전후의 서울이 배경인 소설들이 부산 피난 시절을 전사로 제시하거나(『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 『순정의 저변』), 부산에 여전히 중요한 공간적 위상을 부여하는 점(『미망인』, 『화관』) 역시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일례로, 피난시대를 마치고 환도하는 시점이 배경인 『미망인』(한국일보, 1954.6.16.~12.6.)에서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명신과 대학생 홍식은 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부산행을 택해 흥미롭다. 여기서 서울과 부산은 공간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부산에서는 반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허윤(2015)은 임시수도 부산의 특수성을 지적하였다. 전쟁의 피해를 덜 입은 부산은 물자가 풍부하고 자유의 감각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것이다. “아이가 있는 전쟁미망인과 결혼하는 미혼 남성을 통해 표상되는 새로운 젠더 감수성”²⁷⁾은 이곳 부산에서 비로소 안착할 수 있게 된다.

26) 해군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끝낸 염상섭은 1951년 3월 해군소령으로 임관되어 부산에 자리 잡은 뒤, 부산 역전 큰길가의 2층 목조건물에 있는 정훈감실 산하 편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군』, 『해군장군사』 등을 발간하는 임무를 맡았다. 1953년 10월 16일 해군본부 서울 분실 정훈실장으로 부임했다는 기록을 통해 이 무렵 다시 서울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승환(1994), 『염상섭론: 상승하는 부르주아와 육이오』, 『한국학보』 20-1, 서울: 일지사, p. 8 참조).

27) 허윤(2015),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실제 부친의 피복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홍식은 명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도 부친의 돈에 몰래 손을 대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시도가 쉽게 들통나버린 뒤,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부친에 맞서 그는 부산에 있는 방직 공장으로 취업을 결심한다. 이는 부친의 경제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함이자, “자기 집의 가풍, 가도”로 대변되는 보수적인 기성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때 후자는 홍식의 아버지만 체현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전쟁미망인인 형수를 비롯해 과부인 오씨 부인과 홍파동 셋방집의 주인, 공장의 직공들 등 홍식과 명신을 둘러싼 모두가 사실상 이 전쟁미망인과 미혼 남성의 결합을 감시²⁸⁾하는 기성 질서의 수호자들인 셈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벗어난 부산이, 반대로 둘의 사랑을 가장 큰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후속작 『화관』(삼천리, 1956.9~1957.9)에서 봉순(『미망인』의 금선)의 유혹에 빠진 진호(홍식)의 동래온천과 부산의 하숙집을 전전하는 외도 사건은 부친의 반대보다 더 결정적으로 영숙(명신)과 진호의 결합을 지연시키는 장애로 기능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산은 일상의 공고한 질서를 표상하는 서울과 달리, 자유로운 일탈과 욕망의 실현이 가능한 반면, 방종과 퇴폐로 곤두박질치기 쉬운 혼돈스러운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다.

원 박사학위논문, p. 82.

28) 김종육은 이 소설에서 보호의 대상이자, 감시와 통제 대상으로서 전쟁미망인 명신에게 가해지는 이중적 시선에 대해 지적하였다(김종육(2004),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과 『화관』 연작』, 『한국근대문학연구』 5-1, 한국근대문학회, pp. 229-252).

요새도 임시 수도 부산 거리에는 밤만 들면 이러한 사고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지 몰랐다. 그것이 계획성을 띄우고 요릿집과 관공서 습격에까지 이르게 되어 당국은 그 소위 오염의 후방 교란책이라는 추정까지 하게 되어 그 대책에 부심중이요, 여기에는 절대로 무저항주의로 대하자는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²⁹⁾

‘亂都 釜山’³⁰⁾이라는 말이 대표하듯, 1950년대의 부산을 사회적으로 타락한 혼란의 도가니로 표상하는 것은 이 시기 문학의 클리셰이다. 염상섭 역시 이 같은 측면에서 부산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는데 앞서 살핀 『미망인』은 물론, 공권력이 부재하는 무법지대로서 피난민들의 판자촌을 그린 「혈투」, 「가두점묘」, 전시 중에도 기승스러운 식욕, 성욕, 이기심 등을 피난지에서의 을씨년스러운 제사 풍경을 통해 그린 「慾」, 먹고 살기 위해 남성들을 찾아 거리로 나선 여성들을 다룬 「거품」, 「해지는 보금자리 풍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염상섭 소설은 부산을 이와 같이 정형화된 방식으로만 포착하지 않는다. 앞선 작품들의 한편에는 전쟁 중에도 움트는 사랑과 피난지에서 탄생하는 가정의 풍경을 포착한 작품들(「순정」, 「감격의 개가」, 「싸우면서도 사랑은」)도 있다. 전쟁을 겪으며 더러는 몸이 상하고 더러는 배우자를 잃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을 기르는 일상이 계속되어 나간다는 것, 다시 말해 전쟁이 오로지 파괴와 폐허의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피난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들은 보여주고 있다.

29) 염상섭, 「혈투」, 미상, 1953.3.22.

30) 김광주(1951), 『지구의 비극: 부산으로 가는 길』, 부산: 수도문화사, p. 23.

3.2. 부흥하는 아메리카니즘

나아가 『새울림』, 『지평선』 연작은 전쟁 중에도 새롭게 ‘부흥’하고 ‘재건’되는 것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육박해 들어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들에서 부산은 전시임에도 전쟁의 상흔을 찾기 어려운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것은 『새울림』의 첫 장면에서 단 한 번, 노모를 버리다시피 하고 부산으로 피난 온 어느 월남민 남성의 울음 섞인 고백을 통해 상기될 뿐이다. 부친이 납북된 이후 모친과 외조모를 서울에 두고 온 김종식의 처지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남겨진 이들은 죽었고, 장례 소식도 풍편으로 들었을 뿐인 종식을 정 영감이 꾸짖는 첫 장면은 피난지 부산이 이처럼 살아남은 자들이 당도한 도시이자, 죽은 자들에 대한 생존자들의 죄의식³¹⁾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공간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종식의 비윤리적인 부산행을 질타한 정 영감의 뒤를 이어 미 공보원 주최의 파티에 참석하는 정명신이 짙은 화장과 화려한 양장 차림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당시 부산의 혼종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작가의 관심은 죽음, 죄의식 등의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물러나 있다. 첫 장면의 무대인 다방의 이름이 ‘부흥’인 점 역시 이를 시사한다. 『삼대』의 ‘바커스’, 『무화과』의 ‘보도나무’ 등 기존의 염상섭 소설에서 카페가 지닌 장소적 위상을 상기한다면 부흥다방의 상징성은 간과할 수 없다.

“티룸 리컨스트럭션. 좋은 이름이로군!”

(중략)

“이름두 좋군요. 재건 사업의 투자를 위로해주는 안식처로 잘 서비스해줍쇼. 난 투사는 아니지만 날마다 오겠습니다.”³²⁾

31) 대표적으로, 김광주는 단편 『異端』에서 팔십이 넘은 홀어머니를 서울에 둔 채 처자식들만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하는 과정에서 느낀 죄의식과 자책감을 전면화한 바 있다(김광주(1951), 『이단』, 『피난민은 서글프다』(김광주, 조연현, 한무숙 편), 부산: 수도문화사, p. 8).

피난지 부산이 배경인 1950년대 소설에서 다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일례로 김동리는 단편 「밀다윈시대」(현대문학, 1955.4)에서 부산 광복동의 문충 건물 2층에 위치하였던 다방 「밀다윈」을 전화를 피해 예술가들이 당도한 종착역이자, ‘땅 끝 의식’이 지배하는 부산에서의 유일한 정서적 탈출구로서 그려낸 바 있다.

반면, 염상섭은 「새울림」, 「지평선」 연작에서 부흥다방을 부산에서 활발하게 발흥하는 온갖 “부흥정신의 실천장”으로 표상한다. 이는 전쟁으로 파괴된 일상을 피난지 부산에서 다시금 일으켜나가는 등장인물들의 서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흥’의 양상들이 공통적으로 부산을 거점으로 전개된 미국의 재건 작업 및 원조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문제적이다.

먼저 한국 “부흥사업의 기본 조사”를 위해 부산을 찾은 UNCRA 관계자들 및 미군들과의 연회 장면을 살펴보자. 미국인 발기인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관계 관청의 국장급과 금융계 중견층과 피난수도에서도 무역상으로 굶직하고 드날리는 축들이 와짜 몰린” 것으로 그려지는 이 연회에서 참가자들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이미 전쟁 대신 재건을, 이념의 문제 대신 미국의 원조와 구호 활동에 따른 경제 현실의 변화에 더 큰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영식이는 유엔과 미국의 원조에 사의를 표하고 조사단 일행의 수고를 위로한 뒤에 본론에 들어가서,

“……일에는 선후가 있고 완급(緩急)이 있고 중점을 두어야 할 데는 중점을 두어야 하겠지마는 전와(戰渦)의 구제와 재건사업에 이르러서는 만신창의 환자와 같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치 선후와 완급이 없습니다. 이 병자는 국부적 치료도 필요하지만 전신의 기사회생을 염두에 두고 잘 진찰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32) 염상섭, 「새울림」 36회, 『국제신보』, 1954.1.29.

전국을 부감하고 균형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파괴된 도시도 보아야 하겠고 공업시설의 일천구백사십년도를 기준으로 한 원상회복도 급합니다마는 청진기를 지하자원의 광맥에도 대어 보는 동시에 이 수척한 몸을 소복시키자면 칼로리를 바다에서도 뽑아내야 할 것도 시급합니다. 또한 교육시설 문화시설은 물론이요 정신상 심령상 황폐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부문에서 제각기 제가 더 급하다고 나도 나도 하고 손을 벌리고 덤빌지 모르나 편파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매만져서 전체의 균형 있는 소생을 위하여 면밀하고 공정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이었다.

단장 이하 미인 측은 박수로 응하였다.³³⁾

예컨대, 이 연회에서 유엔의 재건 사업이 전국을 부감하는 균형 있는 계획 아래 실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신영식은 부산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한편, UNCRA에서 마틴 박사의 일을 도우며 전쟁 통에 무너진 생활을 다시 일으켜 나가기 위해 분주하다. 또한 『취우』에서 영어를 전공한 덕에 한미무역회사의 비서 겸 통역 일을 맡았던 강순제의 경우, CAC나 UNCRA 관계자들과 교제함으로써 미제 물품을 수입하는 활로를 뚫고 지폐 더미에 앉을 궁리에 골몰해있다.

이렇듯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재건 활동은 등장인물들 개개인의 일상과 같은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명신은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쟁을 겪으며 사실상 영식과 이별한 그는 피난지 부산에서 미국인과 친미 성향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교장의 꽃”과 같은 존재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명신의 젊고 아름다운 외모 못지않게 능숙한 영어 덕분이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일찍이 부산에 주둔한 해군본부의 영문 타이피스트로 근무하게 된 그는 1.4후퇴 당시 가족을 통솔하는 가장의 역할을 도맡았으며, 미 대사관

33) 염상섭, 『새울림』 33회, 『국제신보』, 1954.1.20.

장교 월슨으로부터 높은 보수의 비서일과 미국 유학을 제안 받기도 한다.

또한 그로 인해 명신은 종식에게도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납북된 부친의 뒤를 이어 부산에서 무역회사를 재발족하려는 종식은 미국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대미무역의 이권을 따내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명신의 어학 실력과 사교계 인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종식이 미국으로 경제 시찰을 다녀온 뒤 발족한 무역회사에 명신은 통역 겸 비서로 취업하며, 그 덕에 부친인 정 영감 역시 허울뿐이지만 사장이라는 직함을 얻는다.

그런데 “영어 마디라도 통하고 댄스도 할 줄 아는 이런 지식 여성”인 명신에게 제공되는 기회와 이권들은 표면적으로 외국인들이 참석하는 연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양공주’, ‘유엔마담’과 같은 직업여성들이나, 명신이 경멸하는 부흥다방의 마담 순제가 추구하는 그것과 별반 다름없어 보인다. 실제 순제는 명신과 유사하게 “영어하는 여성”이라는 “이용가치” 덕에 CAC의 놀랜드나 UNCRA의 단장 마틴 박사로부터 스카우트를 받는다 하면, 종식 일행과 함께 미국으로 경제 시찰을 다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복고주의나 국수주의도 안 되겠지마는 너무나 내용 없는 아메리카주의에도 위확장(胃擴張)이 되어서 신티림이 나고 군침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죠. 구찌베니하구 깡통문화하구 상거(相距)가 얼마나 되겠기에요.”³⁴⁾

이를 두고 영식은 천박한 아메리카주의의 추수라고 표현하였다. 물론 그것은 명신에게 국한된 말은 아니다. 명신과 순제를 비롯한 현대의 여성들, 나아가 피난지 부산의 일상에 만연한 아메리카니즘을 향한 비판인 것이다. 그러나 영어, 양장, 댄스, 미군 장교와의 드라이브, 미국 유학과

34) 염상섭, 『새울림』 51회, 『국제신보』, 1954.2.15.

경제 시찰의 기회 등으로 표상되는 미국문화 내지 아메리칸 드림을 짐짓 비판하는 체 하는 영식조차 UNKRA에서 일하며 영어 공부에 열중하는 한편, 윌슨과의 교제를 즐기며 은밀하게 미국 유학을 욕망하는 모습은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아메리카니즘의 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확인시켜준다.

4. 열려있지만 동시에 닫혀있는 부산

이처럼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과 경제 시찰 등의 기회를 향해 열린 공간으로 제시되는 부산은 2장에서 다룬 전시 서울과 대조를 이룬다. 전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잔류파들의 부역과 징집을 피한 은신 모티프는 인물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함으로써 배경인 서울을 극도로 폐쇄되고 고립된 공간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차단된 공간으로 그려지는 낙동강 너머를 통해 확인되듯, 피난지 부산의 유일한 출구가 미국이라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새울림』, 『지평선』 연작에서 부산은 열려있지만 동시에 닫혀있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부산의 공간성은 부흥과 재건의 열기 속에서도 영식이 명신과 순제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는 결말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 영식은 명신과 순제로 표상되는 아메리카니즘을 경멸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무력하다. 그가 서있는 부산은 오직 미국 헤게모니의 자본주의 세계무대를 향해서만 열려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재촉하는 순제나 정 영감 앞에서 영식이 취하는 유보적 태도는 이 같은 상황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미군정기의 서울이 배경인 『효풍』의 결말에서 박병직이 보여주는 선택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서 병직은 화순을 따른 충동적인 월북행이 좌절당한 뒤, 남한에 남아 혜란과 결혼하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겠노라

공언하였다. 이때 병직의 공부란 삼팔선이 대포 소리 없이 터지는 방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모스크바와 워싱턴으로 상징되는 미소로부터의 독립과, 두 세계가 한 데 살 방도로 표현되는 민족통일에 대한 지향을 의미한다.

“우선 삼팔선이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터질까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소리라니? 대포 소리 말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세계가 한 데 살 방도가 필자 있고야 말 것이니까 그 점을 연구하렵니다.”³⁵⁾

그러나 병직의 의지와 달리 실제 삼팔선에서 대포 소리가 나고, 그 결과 훨씬 더 강력한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새올림』, 『지평선』의 세계에서 병직이 선택한 공부는 더 이상 대안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 미국은 『효풍』이 창작된 미군정기보다 더 깊숙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있으며, 아메리카니즘은 일상의 도처에 스며들어 있다. 나아가 『지평선』은 정전 협상이 본격화되자 미국의 냉전정책이 점차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가는 추세를 시사한다.

“이번에 난 일개월 예정하구 동남아 방면을 한 바퀴 돌구 오자죠.”

월슨도 구미가 당기는 듯이 맥주를 쭉 마시고 나서 새판으로 말을 꺼낸다.

“그저 좋군요. 차차 세계의 시청(視聽)이 한국에서 그리로 옮겨가니까……”

35) 연상섭, 『효풍』(김종욱 편, 2015), 서울: 글누림, p. 428.

하고 영식이는 부러운 듯이 대꾸를 하였다. 사실 영식이는 동란 전부터 이 방면에 착안을 하여 정치 경제…… 여러 방면으로 유의도 해 왔지마는 기회만 있으면 시찰을 해 보겠다는 야심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동란이 종식되면 공산세력의 중압(重壓)이 자연 이 방면으로 집중될 것은 물론이지마는 예서제서 연기가 풀썩풀썩할 화산지대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요? 두 세계의 경계선에서 가장 복잡한 화근 덩어리겠지요.”³⁶⁾

위에서 인용한 월슨과 영식의 대화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지속된 동아시아 지역의 탈식민과 냉전 문제에 관한 영식의 학문적 관심을 시사하지만, 그 시각이나 노선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허윤(2015)은 이 장면에서 월슨을 부러워하는 듯한 영식을 두고 동남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반공 정책과 그 정치적 해계모니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공모적 태도라고 해석하였다.³⁷⁾

이러한 해석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장면에서 더 이상 발화되지 않는 영식의 목소리는 『효풍』과 견주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념적 지향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효풍』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군정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미국에 적대적인 목소리가 거침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좌익 계열의 신문사 기자인 최화순과 중도파 지식인 박병직, 민족주의자 김관일은 각각 다른 이념, 세대, 젠더를 대변하지만, 당시 남한의 미군정과 친미파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스왈로 회담’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인 베커와의 대화 장면은 조선의 해방자를 자처하는 포스트 제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이들의 적대

36) 염상섭, 『지평선』, 『현대문학』, 1955.5, p. 123.

37) 허윤(2015), p. 92.

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기서 화순과 병직은 미국의 원조를 빙자한 조선의 상품시장화를 지적하는가 하면, 식민지 시기보다 더 심하게 좌우익을 분열시키고 극소수의 친미 언론의 여론에만 귀 기울이는 당대 남한 미군정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꼬집는다.

반면, 『새울림』, 『지평선』에 이르면 이와 같은 목소리는 모두 소거되고 다만 3장에서 인용한 미국의 원조에 대한 영식의 사의나, 미국인 남성들을 접대하는 연회에서 명신이 느끼는 이중적인 심리³⁸⁾가 표면화 될 뿐이다. 물론 적대적인 발화들에 대한 소거 조짐은 『효풍』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좌익들에 대한 거둬지는 탄압 및 우익청년단들의 테러 행위는 결국 화순을 비롯한 좌익 청년들과 병직의 월북행 시도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피난지 부산을 무대로 하는 후자에서 그와 같은 선택지는 애초에 제시되지 않는다. 이곳의 유일한 출구는 미국이며 경계로서의 낙동강 너머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실제 낙동강 너머 삼팔선 이북 지역은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 비단 서사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소거된 공간이었다.³⁹⁾ 『새울림』, 『지평선』은 이를 미군의 통역장교로 일선에 나가있는 정달영의 편지나, 서울에 남은 종식의 모친과 외조모의 죽음, 그리고 남북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김학수 사

38) “영어에 능란한 젊은 여자”인 까닭에 화려한 연회에서 귀빈으로 대우 받고 찬사를 받는 일은 명신에게 “마음이 오싹할만치” 만족감을 주는 한편, 양공주 등의 직업여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자각지심을 불러일으킨다. 유사한 심리는 여학교의 영어교사였으나 외국인들이 주 고객인 골동품점 ‘경요각’의 점원이 된 『효풍』의 김혜란을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다. 아름다운 외모에 능숙한 영어 실력을 갖춘 혜란은 과거의 제국(일본)이 수집하고 소비한 식민지 조선의 골동품들을 새로운 제국(미국)을 향해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요각에서 흡사 “동양의 선녀”와 같은 대상으로 오리엔탈리스트 베커를 향해 전시되고 상품화되는데, 이는 미국인들이 참석하는 연회마다 한복을 입고 통역 겸 “화초분” 역할을 하는 명신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39) 김태우(2013),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파주: 창비, pp. 108-162.

장의 부재로써 환기시키고 있다.

이 지역이 다시 본격적인 소설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것은 부산 대화(大火)를 계기로 서울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미망인』에서부터이다. 정부의 환도가 한참 지난 시점임에도,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파괴의 풍경들과, 서울 거리 곳곳의 폭격의 잔해들은 피난시대를 마치고 고향인 서울에 갓 도착한 명신의 눈에 언캐니(uncanny) 그 자체로 비춰지고 있다.

오정 가까이나 되어서 간신히 안양역을 지나면서 벽돌담만 우뚝 우뚝 선 파괴된 공장지대의 끔찍끔찍한 꼴을 비로소 자세히 보는 명신이 모녀는 가득이나 심란한 마음이 한참 더 무겁고 어두워졌다.
(중략)

홍식이 집은 서대문 전차 길에서 얼마 아니 들어간 조그만 주택가에 있었다. 여기도 군데군데 폭격을 맞아서 빈터대로 흰히 내버려둔 곳도 눈에 띄나 조용한 골목 속이었다.⁴⁰⁾

이 점에서 서론에서 언급한 파괴와 원조의 역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새울림」, 「지평선」 연작이 후방 부산을 무대로 선택함으로써 전면화한 미국의 재건 사업과 막대한 원조 물자의 힘은 장세진(2012)의 지적과 같이 미군정이나 대한민국 공보부처의 어떤 프로파간다보다 위력적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추상적 이념이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현실에 뚜렷이 각인되는 계기로 기능하였다.⁴¹⁾ 즉, 남한이야말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의 마지막 보루라는 의식과 표상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구성원들로부터 국민국가성을 온전히 인준 받지 못한 남한사회의 결정적인 구심점⁴²⁾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의 정체성을 새

40) 염상섭, 「미망인」 7회, 1954.6.22.

41) 장세진(2012), p. 131.

42) 장세진(2012), p. 34.

롭게 상상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상징적 자원이 되었다.⁴³⁾

그러나 그것은 한국전쟁에서의 무차별적인 파괴와 진압, 학살의 주체인 미국과 그 공모자로서의 남한 정부를 ‘은폐하거나 삭제하며 구성’⁴⁴⁾된 것이었다. 염상섭이 이 소설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피난지 부산의 열려있지만 동시에 닫혀있는 양가적 공간성 역시 이 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곳은 더 이상 『효풍』의 병직이 감행하였던 이념적 편력이나, 그 최종적 도달점으로서의 선택 행위,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방식의 서사적 봉합을 불허하는 공간이다. 미국을 향해 펼쳐진 끝없는 지평선 앞에서 영식이, 그리고 작가 염상섭이 처한 딜레마를 미완의 「새울림」, 「지평선」 연작은 그리고 있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새울림」, 「지평선」 연작을 대상으로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피난지 부산이라는 공간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이 『취우』 이후의 소설들을 대개 매너리즘에 빠진 세태모사에 한정된 작품들로 평가해온 경향을 재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피난지 부산을 해방기부터 지속되어온 염상섭의 일련의 월경의 여정 가운데 위치시킴으로써 해방 이후에서 전후를 연속하는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피난지 부산과 대별되는 인민군 점령 하의 전시 서울을 그린 소설들의 특징을 일별하였다. 이때 염상섭이 월경에 실패한 잔류파 작가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낙인이 해방기부터 그를 압박해온

43) 장세진(2012), p. 130.

44) 장세진(2012), p. 402.

좌익 혐의에 더해 전시 서울을 그린 작품들에 제한을 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취우』를 비롯한 소설들에서 두드러지는 이념성의 퇴조 현상을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와 동시에 『홍염』, 『사선』 연작을 통해 은밀하게 지속하는 문제의식을 포착하려 했다. 이 작품들은 남북의 이념 갈등이라는 프레임 대신, 2차 대전 이후의 패전국 일본과, 동아시아로 냉전 질서를 확장해나가는 미국, 나아가 중국, 소련을 포함한 거시적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공소한 것인지를 폭로한다. 이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로서의 한국의 탈식민 문제와 함께, 새로운 제국의 지위에서 한반도에 개입하기 시작한 미국 헤게모니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효풍』의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은 계보를 의식하며 『새울림』, 『지평선』 연작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 피난지 부산을 무대로 하는 이 소설들에서 작가의 시선은 전쟁의 상흔을 덮고 신속하게 재건되는 새로운 일상과, 그와 긴밀하게 연결된 부산을 거점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시 재건 작업을 주시한다. 이는 등장인물들의 일상과 같은 미시적인 차원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피난지 부산을 아메리카니즘에 잠식된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4장에서는 미군정기의 서울을 그린 『효풍』과의 본격적인 비교를 통해 미국을 향해서는 열려있지만, 낙동강 이북지역은 철저히 차단된 피난지 부산의 양가적 공간성이 『효풍』의 인물들이 감행한 이념적 편력이나, 그 최종적 도달점으로서의 좌우합작, 민족통일이라는 지향을 더 이상 불허한다고 분석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결과 더 공고한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게 되었다. 이 공간의 출구는 오직 미국 헤게모니의 자본주의 세계무대를 향한 것처럼 보인다. 부산에 팽배한 아메리카니즘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는 없지만, 그에 맞

설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 신영식(그리고 염상섭)이 처한 딜레마는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선택을 유예할 뿐인 모습으로, 나아가 봉합되지 못한 미완의 서사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효풍』에서 드러나듯, 염상섭이 해방 이후 1차 월남했을 당시 서울에서 포착한 풍경은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좌익들을 향한 탄압이 가속화되는 상황 및 남한에서 해방자이자, 점령자로서 부상하는 미국의 영향력이었다. 2차 월남에 해당하는 한국전쟁 당시의 부산행을 통해 그는 이제는 완전히 소거된 공간으로서의 삼팔선 이북과 그 자리를 대신해 동아시아로 확산되어나가는 더욱 강력한 아메리카니즘을 발견하고 있다. 『새울림』, 『지평선』 연작은 비록 미완의 형태로 이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했지만, 이는 전후 서울의 새로운 세태로서의 청년들의 미국식 소비문화, 미국유학, 병역기피 문제를 다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 등의 장편들과 연관 지어 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추후의 다른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자 료】

- 권영민 편(1987), 『염상섭 전집』, 서울: 민음사.
- 김광주(1951), 『지구의 비극: 부산으로 가는 길』, 부산: 수도문화사.
- 김광주, 조연현, 한무숙(1951), 『피난민은 서글프다』, 부산: 수도문화사.
- 김동리, 「밀다윈시대」, 『현대문학』, 1955.4.
- 김종욱 편(2015), 『효풍』, 서울: 글누림.
- 염상섭, 「하치얌은 회억」, 『예술원보』, 1960.12.
- _____, 「동기」, 『사상계』, 1959.8.
- _____, 「사선」, 『자유세계』, 1956.10~12, 1957.3~4.
- _____, 「지평선」, 『현대문학』, 1955.1~1955.6.
- _____, 『미망인』, 『한국일보』, 1954.6.16~12.6.
- _____, 「서울림」, 『국제신보』, 1953.12.15~1954.2.26.
- _____, 「가두점묘」, 『신천지』, 1953.9.
- _____, 「해지는 보금자리 풍경」, 『문화세계』, 1953.7.
- _____, 「감격의 개가」, 『희망』, 1953.5.
- _____, 「혈투」, 미상, 1953.3.22.
- _____, 「거품」, 『신천지』, 1952.3.
- _____, 「홍염」, 『자유세계』, 1952.1~10, 1952.12, 1953.2.
- _____, 「순정」, 『희망』, 1951.12~1952.1.
- _____, 「군인이 된 두 가지 감상」, 『신천지』, 1951.12.
- _____, 「썩나이프」, 미상, 1951.9.18.
- _____, 「탐내는 하꼬방」, 『신생공론』, 1951.7.
- _____, 「해방의 아침」, 『신천지』, 1951.1.
- 한기형, 이해령 편(2014), 『염상섭 문장 전집』3, 서울: 소명출판.

【논 저】

- 김명섭(2000), 『한국전쟁 직전의 ‘애치슨선언’에 대한 재해석: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 『군사』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승환(1994), 『염상섭론: 상승하는 부르주아와 육이오』, 『한국학보』 20-1, 서울: 일지사.
- 김윤식(1987), 『염상섭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재용(1999),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 8.15 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 김종욱(2015),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 『효풍』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 _____(2004),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과 『화관』 연작』, 『한국근대문학연구』 5-1, 한국근대문학회.
- 김태우(2013),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파주: 창비.
- 김학재(2015), 『판문점 체제의 기원』, 서울: 후마니타스.
-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1998),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서울: 새미.
- 방민호(2015),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7-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서세림(2016),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중석 외(2010), 『전장과 사람들』, 서울: 선인.
- 요시미 슌야(2008), 오석철 역,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전후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 서울: 산치렘.
- 이민영(2015), 『1945~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령(2012), 『사상지리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 장세진(2012), 『상상된 아메리카』, 서울: 푸른역사.

- 정종현(2014),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62, 동아어문학회.
- 최애순(2013), 「1950년대 서울 종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현대소설연구』 52, 현대소설학회.
- 허윤(2015),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고 접수일: 2017년 1월 2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2일

Abstract

Busan and Americanism in
Yom Sangseop's Novels in the 1950s

Na, Rhee Boryeong*

This paper focused on the serialized novels *Saeoullim* and *Jipyongseon* by Yom Sangseop, and more specifically on Busan, a place of refuge which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in Yom's novels written in the 1950s. The two novels bring to the fore the everyday life which was quickly reestablished after the wartime scars and wounds were covered up, as well as the closely related wartime reconstruction and aid programs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also centered in Busan. This is problematic because it not only affects the microscopic level, such as the everyday lives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s, but because it simultaneously transformed Busan into a space strongly immersed in the strong surge of Americanism.

On the other hand, the paradox that the United States' reconstruction and aid efforts took place simultaneously with indiscriminate destruction and massacre at the battlefield cannot be overlooked. Yom reveals this unique characteristic of Busan, of being the only space open to the capitalist world stage led by the hegemonic United States while the north of the

* Researche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38th parallel remained completely blocked, in his novels.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issue presented in *Hyopung*, which is set in Seoul under the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rough which it can be confirmed that Busan in Yom's novels written in the 1950s is a space situated in the path of Yom's journey of crossing the border (defecting to South Korea), which continued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at Busan also serves as a representative space which reflects the ongoing themes in Yom's works after the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